

소를 닮은 섬



우도는 소를 닮았다고 하는 섬 속의 섬이다.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바다와 독특한 섬의 풍경을 자랑하는 우도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사랑받는 섬이 되었다.



우도로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737-13 ~ 우도면 연평리 860(약 3.4km)

우도해안길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717 ~ 우도면 연평리 418(약 7.8km)

안비양길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33-2 ~ 우도면 연평리 1-2(약 0.7km)

우도봉길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658-4 ~ 우도면 연평리 337-4(약 1.1km)

우도로 | 소를 닮은 섬

우도로는 우도의 중심도로이다. 제주의 동쪽에 있는 섬 속의 섬, 우도에 가려면 배를 타고 15분 정도 들어가야 한다. 주로 성산포항에 있는 배편을 이용하는데 종달항에서도 우도행 배를 이용할 수 있다. 바다를 가르며 떠난 배는 우도의 남쪽에 있는 천진항이나 서쪽에 있는 하우목동항에 닿는다. 섬의 이름을 딴 우도로는 우도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가로지르는 길이다. 소가 머리를 내민 모양을 닮았다 해서 우도라고 불리는 이 섬에 사람들이 살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말을 키우는 목장으로 주로 사용하다가 1842년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이 개간하고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허가를 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섬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 살게 되면서 여러 마을이 생겨나게 되었다.

우도로에는 해녀항일운동기념비가 있다. 하도리와 더불어 우도에서도 해녀들이 앞장서서 항일운동에 나섰다. 약 300여명의 해녀들이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며 결사적인 투쟁을 벌였다. 어려운 시절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항일 투쟁에 나선 해녀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이다.

우도해안길 | 우도 올레길



하고수동 해변

우도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길이 **우도해안길**이다. 우도는 반나절이면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는 작은 섬이지만 해안선을 따라 걷다보면 다양한 모습을 만난다. 천진항에서부터 **우도해안길**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걷다보면 우도홍조단괴해변, 하우목동항, 하고수동해변, 비양도, 검멀레해변 등을 만날 수 있다. 작은 섬이지만 바다를 향해 펼쳐진 해변은 다양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그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도홍조단괴해변은 일반 모래사장과는 달리 홍조류에 의해 생겨난 붉은 모래입자로 독특한 느낌을 준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멀리 보이는 제주도의 모습까지 한 폭의 그림을 이룬다.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해변으로 섬 남쪽에 있는 검멀레해변이 있다. 검멀레해변은 검은모래를 만날 수 있는 해변이다. 이 해변 끝에는 고래가 살았다는 전설이 전하는 동굴이 있어 관광객의 발길을 끈다.

안비양길 | 비양도

안비양길은 우도에서 비양도의 서쪽 끝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우도해안길을 따라 하고 수동해변을 지나 조금 더 걷다보면 비양도가 보인다. 이 섬은 한림에 있는 비양도와 이름은 같지만 또 다른 섬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두 섬을 일컬어 제주에 양쪽 날개가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 우도에서는 20세기 초반까지 비양도에서 잡은 해산물을 가지고 마을 제사를 준비했었다고 한다. 섬이었던 비양도는 방축을 쌓아 길을 내면서 우도와 연결되었다. 그래서 걸어서도 쉽게 섬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우도봉길 | 우도봉과 우도등대공원

우도봉길은 우도의 남쪽에 솟아있는 우도봉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우도봉은 소가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우도의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쇠머리오름이라고도 부른다. 우도봉에 있는 우도등대공원은 제주에서 현대식 등대가 최초로 설치된 것을 기념하는 등대테마공원이다. 이 밖에도 우도봉 정상에 서면 성산일출봉을 비롯해 제주도 동쪽 해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섬을 나와 만나는 제주도의 모습이 또 다른 묘미를 안겨준다.



우도등대

우도가 보여주는 색다른 해변과 소를 닮은 우도봉의 아름다운 경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쌓고 싶은 환상의 섬으로 다가간다.

